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말은 시간의 응집이고, 사람의 경험과 기억, 생각을 전달하는 매체다. 말은 시간이라는 맥락 안에서 생성과 소멸을 겪는다. 어떤 말은 살아남고, 어떤 말은 도태되어 사라진다. 지금 내 말은 거의 완전한 서울말인데, 나는 본디 서울말 사용자가 아니었다. 나는 전라도 북부와 충청도 남단의 경계에 있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시골에서 들을 맡아지처럼 천방지축으로 뛰어 놀던 촌뜨기가 서울의 부모와 합가하면서 서울 내기가 되었다. 충청도 입말에 익숙하던 내 고향에서 서울말은 낯설 그 자체였다. 어린 고막을 울리던 서울말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나는 금세 서울말에 반한다. 고향의 입말과 서울말이 사뭇 다른데 놀라고, 나는 그 차이를 문화적 충격으로 흡수한 것이다.

한 세기 전 경성(서울의 옛 이름)에 사는 중류층 말은 '경알이'말이라 했다. 경알이 말은 표준어의 지위를 얻으며 위상이 더욱 공고해진다.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토박이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나 염상섭의 소설들은 지금은 듣기 힘든 경알이 말의 보고다. 한국

혹시 '경알이' 말을 아세요?

영화사의 걸작으로 꼽는 주요섭 소설이 원작인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신상옥 감독, 1961)에서도 서울말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극 중 어머니와 어린 옥희가 주고받는 말이 서울말이다. 반세기 전 서울말과 지금의 서울말은 또 다르다. 세월이 흐르면서 서울의 주인들이 바뀌고 그런 가운데 서울말도 달라진 것이다.

서울말은 서울 토박이의 오랜 습속과 정서가 뱀 입말이다. 서울말은 경기말과 다르고 인천, 강화 말과도 차이가 난다. 그렇건만 서울말과 충청도말, 전라도말, 경상도말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서울말이 소중하면 지방의 말도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서 귀한 말이다. 서울말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면 지역말도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 자산이다. 일부에서는 서울말을 서울객쟁이말이라고, 혹은 서울말이 간사하다고 흉을 보았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동안 나는 억세고 투박한 지방말에 견줘 서울말이 더 세련되었다고 생각했다.

서울말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 해방 뒤엔 미군 상주와 함께 영어의 영향을 받는다. 서울말은 해방과 한국전쟁, 산업화라는 격랑 속에서 살아남은 말이다.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상경 인구가 빠르게 늘었다. 그 결과 서울말은 지방말과 섞이고 동화되면서 그 특색이 없어졌다. 어른들은 계단을 '가이당(階段)'이라 하고, 도시락을 '벤도'라고, 손톱깎이를 '스메끼리'라고, 등에 매는 가방을 '니꾸사꾸

(rucksack)'라고, 바지를 '쓰봉'이라고, 곁에 걸치는 옷을 '우와기'라고 했다. 우리말에 뒤섞여 쓰던 일본말의 잔재는 그 존재감이 뚜렷했다.

본디 서울말에는 된소리 발음이 거의 없었다. 자음 ㄱ, ㄷ, ㅂ, ㅅ, ㅈ 같은 예사소리를 ㄱ, ㄷ, ㅃ, ㅅ, ㅉ 같이 된소리로 쓰지 않았다. 어느 시기부터 서울말에 예사소리를 밀어내고 된소리 발음들이 부쩍 늘어난다. 예전에는 '소주'라고 발음하던 것을 지금은 다들 '쏘주', '쪄주'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서울말이 거칠어진 세태로 말미암아 거칠어진 거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오라뽀뽀(올케)', '그라께(재작년)', '금검스럽다(근검스럽다)', '후프루마뜨루(휘푸루마뚜루)' 같은 말은 새말의 위세에 눌러 지위를 감춘 서울말이다.

나는 서울 서촌 일대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다. 서울의 수돗물을 마시고 서울에서 생업을 일구며 자식을 낳고 마흔 해 넘게 살았다. 살면서 서울 사람의 어휘와 말 본새를 듣고 배우며 서울 사람처럼 서울말을 썼다. 서울 시민 노릇을 하며 사는 마흔 해 동안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던 전차가 사라지고 새로 지하철이 개통한다. 도심에 고층 빌딩과 고층 아파트 대단지들이 들어서고, 한강 이남의 대규모 개발로 강남이 노른 자리 땅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내 귀와 혀에 인이 박힌 서울말도 그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서울말의 부침을 더듬자니, 세월의 무상함 한 줄기가 따라온다. 가끔 어린 시절 '햇질랑' 같은 어미를 쓰던 서울 동무들과 그들의 서울말이 그리워진다.

종교칼럼

신의 은총과 공동선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기대감을 지니고 있으며, 기대감의 성취 여부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달라지기도 한다. 만일 사람에게 기대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기뻐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을 때는 실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금기야 중요하기도 한다. 만일 어떤 물건에 기대하여 그 기대가 채워졌다면 물건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헌신처럼 던지거나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예상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기대감(期待感)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삶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가?", "왜 우리는 어떤 것과 무엇에 기대하여 희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그리고 혹시 사람이나 어떤 것에 기대하는 것이 '내 존재의 존엄성을 망각하고 있거나 내 삶의 행복 기준을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행복과 기쁨은 어떤 기대감에서 올 수 있지만, 무엇

보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살아 있으니 모든 것이 고마운 것처럼.

종교라는 단어는 가장 뛰어난, 근본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종교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이며 상식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교는 소외시키지 않고 배제하지도 않으며 공동선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이 통합, 곧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을 가르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종교라면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를 가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옆에서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희망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봉사활동과 희생은 좌절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다시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생명을 포기하려는 이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한다. 가톨릭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활동하는 나눔과 봉사과 희생을 거룩하게 여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의 일을 신앙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종교의 이름을 걸고 어떤 특정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행태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 '종교 사업가'라고 칭하기도 한다. 장사꾼이고 그 종교를 믿는 신앙인들을 이용해 뿐이며 신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은 자신을 신으로 칭하여 모두를 위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통용되지도 않으며, 인간 상식을 벗어나서 신을 돈으로 거래하는 하나의 '종교 사업가'가 아닐까? 사회학자들은 종교를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나는 소중한 내적 동력이라 하며, 철학자들은 종교를 사람들에게 희망을 도왔게 도와주고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의 진리라고 표현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의 은총은 공동선을 향한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 공동체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2장 4절에서 11절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은 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하고, 영물을 식별하거나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해석하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 모든 은총은 하나의 원천, 성령께서 일으키신다. 곧 은총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총이 특별하여 다른 은총을 받은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망친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공동선과 멀어지고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 공동선에 멀어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종교 사업가'! 그래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기고

설날을 기다리는 이맘때 서정



박성구 전 광주일보 교사

근심 걱정이란 전혀 없던 시절이었다. 무얼 바라거나 부족함도 치열한 경쟁도 없는 시절이 분명 있었다. 그런 시절은 긴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소중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날들이다. 폭설주의보와 함께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날이면 내 마음은 휘날리는 눈송이를 따라서 나의 상상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그 먼 곳으로 데려다 놓는다. 고향 집 마당에도 할아버지 산소에도 눈은 내리고 내 상상력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그 옛날까지 이렇게 데려다 놓는다. 언제인지도 모르게 그 행복한 시절 근심 걱정 없던 시절로 데려다 놓는다.

매칠 전 제 엄마의 품에서 '엄마 난 엄마가 좋아'라는 유치원생 손자 녀석의 조용한 고백을 듣는 순간이 새콤하게 재생된다. 그 절실한 표현은 어디서 왔을까? 한참 동안을 어린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속에 내가 들어 있었다. 내 어렸을 적 내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 제아 가슴에서 내놓은 것이다. 참으로 꿈속에서 어머니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제아 꺼내어 바라보고 있었다.

백설을 따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백발 소년은 그렇게도 지 어머니를 좋아하는 그 소양이 내 무의식의 통로를 타고 전달된 내 유전자로서 그렇다고 단정해야 했

다. 나에게서 일렁이는 사랑과 그리움은 어디서 생겼을까? 이맘때면 늘 내 기억을 따라서 옛날로 돌아가는 긴 행로를 즐긴다.

그 시절 어렸을 적 이맘때면 어머니는 옛기름을 기르셨다. 식혜를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몇 모금씩만 주시고 옛을 고으셨다. 그때부터 아랫목은 뜨끈뜨끈해 흠이불 하나만 있어도 엉덩이가 뜨거웠다. 옛을 고는 시간은 여간 길어서 달콤한 한 방울을 맛보려고 여러 번 가마솥을 바라보곤 하였다. 긴 시간을 기다리며 침을 삼키고 있는 우리들은 단 수숫대 열매에 묻은 달콤한 옛 방울을 공급받으면 세상의 가장 달콤한 당료 정수를 맛볼 수 있었다. 정월이 지나면 할머니는 잘 보이지 않은 시령에 올려놓고 대사가 있을 때만 조금씩만 내놓으셨다. 어른들이 틀에 나가시고 동생과 둘이 있을 때 동생을 믿고 올라 옛단지에 있는 옛을 손가락으로 문혀 빨아먹곤 하였다.

또 먼 만들기들 아이들의 꿈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축제도 경이다. 설 한 달 전부터 장날이면 연실을 사팔라고 줄라서 어른들을 따라 나선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직접 연실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리 동네에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동네 아이들 연을 거의 만들어 주셨다. 적당한 바람이 부는 시간을 택해서 각자의 연을 푸른 하늘에 날려 보내면 그때 지니고 있었던 모든 소원이 그 연에 실려 창공에 펼쳐진다. 연을 거두어 집으로 돌아와서 그 하늘로 날았던 연을 벽에 걸어두고 잠들면 꿈에서도 높이높이 날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되곤 했다.

설날 가장 설레는 것은 세뱃돈을 받는 기대다. 혼자 합계를 계산하기도 하고 그 세뱃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

지 상상해 보는 것은 지금도 설레는 추억이다. 내 경제 생활의 터전이 시작된 시작점인 듯하다.

설빔은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설날의 기쁨이었다. 내 몸에 적당히 맞는 것이 아니라 일 년 아니 이 년 동안은 입을 수 있는 넉넉한 것을 장만하였다. 그때는 유명 브랜드는 공평한 패션으로 통일되어 누구나 유명 브랜드요 고급 상표였으니 저마다 만족하고 친구의 웃도 구경거리요 자기 웃은 귀중품 중의 귀중품이었다. 눈 내리는 창밖은 소년의 나를 고향 집으로 자꾸만 데려다 놓는다. 왜 그날의 근심 걱정 없던 시절의 눈송이가 아닐까? 나의 욕심이 저 눈송이에게까지 실려 있을까? 하염없는 생각이 눈송이를 따라다닌다. 생각해 보니 나의 곁에는 언제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다.

지금도 밖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다. 그 옛날 근심 걱정 없던 시절로 데려다 놓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행복한 마음으로 차례도 준비하고 내 손수들이 그때의 나처럼 기다릴 세뱃돈도 가능하면 많이 준비해야 한다. 많이 주면 더 좋을지를 알지만 주머니가 그리 넉넉하지 못함이 많이 아쉽다.

겨울에 비친 모습은 이제 어느 새 눈썹까지 하얀 지 헤라고는 없는 산신령에 가깝다. 밖에는 폭설주의보가 내리고 한파주의도 내리서 풍광 얼어붙었나 보다. 어린 날 설날을 기다리던 추억은 내 마음 속 따스한 정감으로 흐르고 있다. 겨울의 한 가운데 있는 지금도 그 따스한 설날을 기다리던 겨울 서정이 남아 있음이 세상의 번거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된다. 설날을 기다리는 이맘때 겨울 서정은 정겹다.

社說

참사 부른 공항 안전시설 재설치 서두르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까지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설치된 것을 문체부 샅샅이 훑어본다. 활주로가 짧다 하더라도 둔덕이 없었다면 여객기의 착륙 길이가 길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둔덕이 콘크리트 등으로 강하게 설치되는 바람에 충격이 약한 여객기의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안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 국내의 권고 기준보다 짧은 경우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도 검토한다고 하니 만사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토부는 광주·여수공항에서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을 없애기로 했다. 흑산공항 등 지형 제약으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특수 제동장치도 설치한다. 광주공항의 경우 둔덕의 높이가 낮은 수준(0.7m)으로 확인돼 흙을 더 쌓아 활주로와 수평을 이루게 할 계획이다.

반면 여수공항은 둔덕 높이가 활주로보다 4m 높아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을 재설치하며, 안전구역도 208m로 권고수준(240m)에 미달해 부지내에서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무안공항도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 시설을 재설치하며, 안전구역도 공항 부지내에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또는 늦어도 연말 내 개선 작업 완료를 계획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토부와 재정당국은 예산 집행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광주·전남에 활력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만에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냈다. 특히 전남지역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한 총액은 879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21%인 187억원을 전남도가 모금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전남도 시행 첫 해인 2023년 대비 2배인 30억원이 늘어난 45억3000만원을 모금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모금 성적도 좋아 상위 10개 지자체에 5개나 포함됐다. 광주 동구는 24억원 가량을 모금해 전국 1위에 올랐다. 발달장애 청소년 'E.T야구단' 지원 사업과 100년 된 광주극장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지정기부제를 도입해 성과를 냈다. 무안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에 참사를 막아준 공로로 지정기부제를 도입해 성과를 냈다. 무안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에 참사를 막아준 공로로 지정기부제를 도입해 성과를 냈다.

모금 제도를 넘어 지역을 위태하고 응원하는 장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좋은 성과를 낸 이유는 출향인들의 고향 사랑도 있었지만 자치단체의 아이디어가 빛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광주 동구처럼 독특한 사업을 발굴해 지정 기부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뻔한 사업을 살려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광주·전남지역 자체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확인된 만큼 몇가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500만원이던 기부 상한액을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늘린 것은 환영할 일이다. 차제에 10만원에 불과한 전액 세액공제 금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만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대폭 올린다면 더 많은 기부가 이뤄질 것이다.

無等鼓

명절 연휴 기기사향이 몇 가지 있다. 젊은 친척에게는 취업, 결혼, 출산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안된다. 학생에게는 성적과 입시에 대해 묻는 것도 금기에 포함된다. 2025년 설 연휴에는 가급적 정치 이야기도 줄여야 할 상황이 됐다.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양 극단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탓이다.

자칫 잘못 깨낸 정치 이야기는 풍성하게 차려진 잔칫상만 뒤엎어야 하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경이다. 명절에 싸우면 화해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모처럼 만난 자리에서 싸웠으니 다시 만나는데도 힘들 수 있다.

설 기기사향

명절 민심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정설처럼 여겨진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4번의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추측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와 이듬해 총선 결과가 거의 일치하면서 '명절 효과'는 일종의 '과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각 정당 지도부뿐 아니라 지역구의원들도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현역 국회의원은 서둘러 지역구를 찾아 조직을 다지고, 각 정당도 고속도로 진출입구와 터미널·기차역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올 설 연휴 민심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이념 지형은 중도가 사라진 형국이다. 계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팽팽한 이념 줄다리를 하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간 세 대결은 '중도의 선택'에 따라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때문에 양 진영은 중도를 흡수하기 위해 각종 공약을 만들었다.

중도는 진보와 보수가 양 극단에서 조금씩 서로의 진영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효과를 주기도 했다. 중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진영 간 '화합과 협력의 길'도 멀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다. 그러나 이번 설 연휴에는 '정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친척'이 있더라도 가만히 두시길. 건강한 중도로 남아 있도록.

/오광록 서울본부 부장 kroh@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Includes title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